

지금 일선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른 체벌금지 논란으로 찬반여론이 분분하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학생생활지도가 불가능할 정도의 교권이 실추되고 교실이 붕괴된 상황인데, “앞으로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들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런 상황에서 체벌금지정책은 원칙적으로 옳은 방향인 만큼 다소의 혼란은 있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정착될 때까지 학교와 가정 및 사회가 인내심을 가지고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얼마 전 서울 시교육청이 발표한 ‘문제행동 유형별 학생생활지도 매뉴얼’은 그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일종의 교육지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논란의 이면에는 이른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전통적 사제관이 지배하고 있던 학창시절을 보낸 오늘날의 기성세대들이 극복하지 못한 일종의 과거 지향적 향수가 자리 잡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라는, 다소 불순한 의심도 해보았다. 당시에는 용모가 단정치 못하고 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지각하고 결석했다는 이유로, 시험성적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연애편지를 썼다는 이유로 등 참으로 많은 구실로 매타자를 당하기 일쑤였다. 그래도



불자 세상보기

허남결

동국대 윤리문화학과 교수

체벌보다는 이해와 설득

다들 별다른 불만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제자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랑의 매이자 어쩌면 교육적인 필요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가정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었다. 예전에는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친구연필 훔쳤다는 이유로, 집에 늦게 돌아왔다는 이유 등으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매를 맞는 경우도 많았다. 그런데 요즘은 자식이 하나 혹은 둘 밖에 되지 않는 핵가족이 많아 보니 가정에서부터 엄격한 훈육을 받고 자란 아이가 거의 없지않고 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제는 잃든 좋은 과거와는 다른 사제관계를 교사와 학생 스스로 창출해 나가야 할 때라고 본다. 체벌금지를 두고 벌

어지고 있는 최근의 논란은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서 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믿는다.

오늘날의 기성세대들은 가정과 학교 및 사회에서 요즘 아이들이 버릇없다고,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형편없는 이기주의자라고 비난하기에 앞서 과연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잘못을 차근차근 설득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스스로 자문자답해 봐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경우를 되돌아 봐도 그 대답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올해 고3인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 필자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뱃다 소리부터 지르고 혼내다가 삼지매 때리고 싶은 마음까지 든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아이의 입장에서 왜 그랬는지를, 호흡을

가다듬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어본 적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이었다.

필자의 경우 어느 날 부터인가 아들놈을 아버지라는 권위의 이름으로 통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덩치도 나보다 크고 각종 정보매체에 실시간으로 노출돼 있어 어쩌면 아는 것도 나보다 더 많을지 모른다는 일종의 두려움이 생겨났던 것이다. 처음에는 옛날을 생각하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내가 먼저 대화를 시도했고 아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해 보았다. 그러자 반신반의하던 아이도 차츰 아버지의 입장을 수긍하려는 눈치였고 집안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모르고 몰라도 힘은 들겠지만 학교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체벌의 즉각적 효과와 편의성보다는 매를 들지 않고도 학생지도가 가능한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겠다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세와 각오를 거듭 가다듬을 때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지도가 안 되는 학생이야 누가 어떻게 하겠는가? 한 마디로 말해 지금의 상황은 필자와 같은 기성세대들에게 그동안 아이들을 대하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더불어 지식세대를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요구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다.

사설

정화운동이 남긴 얼룩 씻어내야 한다

불교정화운동 기념사업회 창립을 위한 발기인들이 지난 11월 17일 기자회견을 열어 기념사업 내용을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 동국대 前 정각원장 법산 스님 등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교단의 중진들이다. 스님들은 기자회견에서 불교정화기념회 관 복원, 기념일 제정 및 정화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당장 24일 학술세미나도 연다. 50년 전 정화운동의 깃발이 된 당시의 전국 승려대회를 기념하려는 뜻이다.

한국불교는 일제치하를 거치며 취지를 강요당했고, 수행은 등한시되었다. 아예 한국불교를 일본불교에 편입시키려 했다. 해방된 조국에서 율곡은 조선의 불교로 거듭나야 했다. 흐트러진 승풍을 바로잡고, 후학을 길러내고, 수행과 포교를 뒷받침할 교단조직과

공간으로서의 사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정화운동의 취지를 다시 드높이는 것은 오늘의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졌고, 중생들의 고통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런 까닭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취지가 옳았음에도 정화운동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종단 난립, 폭력의 악순환을 낳은 뿌리가 정화운동이라는 지적도 있다. 비구-대처 간 물리적 충돌을 빚는 와중에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스님 행색을 갖췄고, 이들이 그대로 사찰에 주저앉았다. 정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부정적인 요소를 드러내어 조선의 불교로 거듭나야 했다. 흐트러진 승풍을 바로잡고, 후학을 길러내고, 수행과 포교를 뒷받침할 교단조직과

고작 사흘 열고 폐회한 정기총회

11월 9일 개원하고 첫 정기회를 열었던 조계종 제15대 중앙총회가 16일 회기를 단축해 폐회했다. 종정감사 기구를 빼면 본회의를 연 날은 고작 3일이었다. 대입수능시험을 앞두고 임시기도가 있어 단축했다는 것이다. “종회의원이라면 종단발전을 위해 희생할 각오가 돼있어야 한다. 항상 사찰 행사로 회기가 단축되는 것은 문제다”라는 지적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종단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이번 종정감사에서도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활동이 부족하다 >교구본사가 단위사찰 역할만 하는 곳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삼스런 지적이 아니다. 우리의 삶의 궤적과 결실은 어디에서 오는가. 부단히 노력하고 자신을 두드려 닦고 끊임없이 절하며 수많은 눈물을 흘려 보고 아픔을 겪어 보고서야 얻어지는 참된 마음, 간절한 믿음,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결실들이 아닐까. 진정 우리들이 불조의 골수를 얻고 설산 동자와 헤가와 같은 위엄장구의 자세로 세상 앞에 나서서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자신을 낮추어 돌이켜 보는 회광반조의 삶을 살자. 너무나도 쉬운 이 가르침을 놓치고 있다. 부처님의 두광(頭光)은 중생들의 번뇌무명을 밝혀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중생들의 아만은 서거어린 부처님의 광명이 아니라 자신과 불교를 죽이는 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에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바람직한 대책을 찾기 위한 토론을 벌여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중 낙동강 구간에서 있었던 문화재 훼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도 갔어야 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조계종 중앙종무기(총무원·포교원·교육원 등)의 1년 예산액이 일반·특별회계 합쳐 323억원 정도다. 이 액수로는 사회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에 너무 부족하다. 예산 확보의 묘안을 찾기 위해서는 밤을 새우는 것도 모자라는 상황 아닐까.

개원 며칠 만에 폐회한 것을 두고 15대 중앙총회에 대한 기대를 접어서는 안되겠지만, 종도들로부터 새로운 기대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중앙총회 역할을 높이기 위한 종회의원들의 자성이 요청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www.hyunbul.com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사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부대중 갈림

선오 스님

만불선원 주지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라

산림이라고 불리어 오는 범회가 있다. 이때 산림이란 말이 들어간다. 이 말은 “나라고 하는 아만의 큰 산을 확 꺾어 버리고 공덕의 숲을 길이 길이 길러가야 한다(摧折人我山 長養功德林)”는 말을 줄여서 한 말이다. 행자 시절이나 강원 학인시절에 누차 들어왔던 말이다. 위에서 보듯이 범법 스님은 경전을 외었다는 아만심과 득의양양함으로 가득찼었다. 마치 덕산 스님과 용담 밑의 떡 파는 노파와의 일화처럼 단박에 그것을 깨뜨려 버리는 내용이다. 혜능 스님은 그에게 외우는 소리를 내지 말고 마음을 쉬지 못하였다는 것을 가르쳤다. “침묵이 부처임을 믿는다면 입에서 저절로 연꽃이 피리라.” 한 일갈이 가슴에 와 닿는다.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경의 취지를 알아 버린다면 굳이 외울 필요가 없음을 설교하였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부류들을 많이 만난다. 선원 수좌이든 학인이든 참으로 본질을 외면하고 허상과 껌질을 뒤집어 쓰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난다. “부처가 되기를 바라지 말고 네 자신이 부처임을 깨달으라”라는 직지인심의 범문이 더욱 가슴 선연하게 다가오는 계절이다. 찬바람에 북풍한설에 뼈를 에이는 한기를 참고 어묵동정의 선정을 참구하는 불가(佛家)의 아름다운 계절이 문을 열고 있다.

세상은 온통 시끄러운 니전투구의 속으로 빠져들지만 우리 불문은 적막함을 배경으로 수행의 계절로 치닫고 있다. 입으로만 화두니 구두니 하면서 알맹이 없는 말들을

(육조단경)에 범달(法達)이라는 스님이 나온다. 흉주 사람인 스님은 7살에 출가해 향상(법화경)을 읽었다. 어느 날 범달 스님이 6조 혜능 대사를 찾아와 절을 했다. 그런데 머리가 땅에 닿아도 절이 닿지 않는 절을 한 스님을 혜능 대사가 준엄하게 꾸짖었다.

“절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머리 속이기가 그렇게 싫으면 하지말자 뭣하러 하는냐? 네 마음 속에 필시 무엇이 하나 들어 있는 모양인데 무엇을 익혔느냐?”고 힐문했다. 그러자 범달이 답하기를 (법화경) 외기를 이미 3000독이 넘었습니다.” 그러자 혜능 스님은 “네가 설령 1만독을 외워 경의 뜻을 통달하였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면 도리어 허물이 된다. 절을 모르는구나. 내 계승을 잘 새겨들여라.”

절은 본래 아만을 꺾어주고 하는 것 어찌하여 머리가 땅에 닿지 않는가. 나(我)라는 것이 있으면 허물이 생기고 공덕을 잊으면 복이 한량없는 것을. 혜능 스님은 범달 스님에게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다.

가을도 다 보내고 동안겨 결제의 철이 돌아왔다. 다시 3달 동안겨가 시작됐다. 불교에서는 아만을 제일 경계한다. 그래서 하심을 강조하고 끝없이 마음을 낮추라고 말하고 있다. 수없는 세월동안 많은 사찰에서 산림(山林)을 주제로 범회를 열어 왔다. 신중산림, 화엄산림, 범화산림, 금강경

* 불교서적총판 운주사는 양질의 불서를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가득한 공간

불교서적총판 (주)운주사

- 불교서적·음반 도매
- 불교서점 개설
- 도서관 납품
- 불교도서전 개최

운주사 www.unjusa.com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5가 120번지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전화 (02) 3672-7181 | 팩스 (02) 3672-7186

법보시용 추천도서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을 가장 많이,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법화경 독송!

유려하고 현대적인 언어로 번역되어 새롭게 태어난 우리말 법화경!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헤조 역/국판변형/금장/630쪽/18,000원/운주사

달라이 라마가 추천한 책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슬프고도 재미있는 이야기!

굿바이 티베트

죽음을 무릅쓴 망명길, 낯선 망명지에서 맞아야 하는 처참한 삶. 그러나 더 이상 절망은 없다. 역경과 고난이 때로는 위대한 스승이 된다.

마리아 블루멘크론 지음, 김화경 옮김/국판양장/384쪽/13,000원/하안연못